

‘광주형 일자리’ 일단 합의 실패

광주시 - 현대자동차
협약서 수정안 싸고 이견
다음주 초 재협상키로
국회 예산 심사 일정 촉박
15일 전 합의 실날 희망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8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에 실패했다. 시는 오는 15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 다음주 초에 다시 한번 현대차와 만나 재협상을 갖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노동계가 세부조항에 막판까지 이견을 내놓았으며, 이를 수렴한 협약서 수정안에 대해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상 실마리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은 8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최선을 다해 입장을 조율하려 했으나 현대차가 협약서 수정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노선이라는 이번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타결에 실패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다시 한 번 무산될 위기에 부딪혔다.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할 한 지역노동계가 막판 주춤하고 있는 데다 현대차 내부에서조차 최근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삼아 신규 투자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새벽까지 이어진 투자유치추진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됐다. 시와 지역노동계의 이견이 계속 이어지



국제교류의 날...“줄다리기는 즐거워” 8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교류의 날 행사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이 줄다리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교수와 가족, 외국문화에 관심있는 일반 학생 2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 참석자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큰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최근 당정청은 물론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전폭적 지지를 보낸 바 있다. 3000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내년 국비 반영을 위해서는 서둘러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

만, 노사의 이해관계 속에서 입장차만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부시장은 “입술이 다 말라갈 지경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양측 모두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있어 계속 만나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월 1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광주시는 당초

오는 2021년까지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7000억원(2800억원 참여자 투자·4200억원 금융권 차입)으로, 연간 경형 SUV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위탁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현대차는 2대 주주로 참여, 지분 참여자 초기 투자금 2800억원의 19% 수준인 530억원을, 광주시는 1대 주주로, 590억원(21%)을 투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6곳 선정

광주시가 정량평가, 시민심사단,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중 송정공원을 제외한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중앙공원 1지구에는 광주도시공사가 선정돼 공영개발방식을 적용, 개발수의 전체를 공공을 위해 사용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는 8일 “중앙공원 1지구-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금호산업(주), 중외공원-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주)라인산업, 운암산공원-우미건설(주), 신용(운암)공원-산이건설(주) 등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중앙공원 1지구 2개 업체 ▲중앙공원 2지구 3개 업체 ▲중외공원 2개 업체 ▲일곡공원 3개 업체 ▲운암산공원 4개 업체 ▲신용(운암)공원 1개 업체 등이

접수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6개 공원(7개 지구) 중 송정공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광주도시공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광주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민간공원 대상지인 10개 공원 중 1단계 4개 공원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는 1단계를 보완해 공원 전체부지 매입 후 일부 면적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원형보존함으로써 30% 범위 내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9.3%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조만간 우선협상단을 구성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구체적인 개발 규모 등에 대해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1박2일 토론회

시민참여단, 내일 찬반 투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오는 10일 결정하게 될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는 ‘광주형 공론화’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론화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9-10일 화순에서 진행되는 250명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에 따라 1표라도 더 많은 측의 의사 대로 공론화 결과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단 1표라도 더 많은 쪽의 주장을 토대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제시할 권고안을 만들게 된다.

9~10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등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둘째 날인 10일 오후 3시 10분

시작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민참여단의 찬·반 평가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 투표로 진행된다.

최 위원장은 “앞서 시민참여단 250여명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18.5%에 달했다”면서 “10%미만이 대부분인 국내 설문조사 응답률에 비해 무척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관계부서가 당일 화순을 찾아 광주의 공론화 절차를 지켜보고,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자신들이 선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취소하고 광주시가 진행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다시 기획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론화에서 중요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인기에 민주도시 광주답게 이해 관계자를 비롯해 광주시민 모두가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13회 14세 & 세계 & 경제

나는 지금까지 강아지를 2마리 키웠다. 한 마리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한 마리는 1년 전에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다. 지금 키우고 있는 개를 볼 때마다 죽은 개가 생각난다. 죽은 개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개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이 죽은 개를 차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죽은 개는 죽은 개고 살고 있는 개는 살아있는 개다. 죽은 개에 대한 미안함으로 지금 개에게 잘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장희성 / 장래의 꿈 : 소설가

나는 지금 사춘기의 시기이다. 이유 없이 부모님에게 화를 내거나, 가족보다는 친구와 놀고 싶고, 부정적인 중2사춘기 학생이다. 부모님과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늘어난다. 이 경계는 한순간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부모님과 자녀 모두 정말 많은 고민을 한다. 자녀는 진로에 대한 고민, 부모는 미래에 대한 고민, 이 고민도 한순간이다.

김지은 / 장래의 꿈 : 작가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됩니다.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경황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꼭**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충동 876-17)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